

민수기 26-36장의 문학적 구조와 통일성: 땅 분배와 새 세대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이미숙*

1. 서론

오경의 책 제목들은 그동안 각 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70인 역에서 유래한 것이고 독자들의 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70인역의 Ἀριθμοί<아리스모이>는 ‘숫자, 합계’라는 뜻으로 민수기에 담겨있는 두 차례 걸친 인구조사 이야기(민 1-3; 26)를 반영한 책 이름이다. 반면에 히브리어 성경 MT는 베미드바르(בְּמִדְבָּר)라는 책 제목으로 불리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 베미드바르는 광야라는 지리적인 배경이 시사하듯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암시한다. 민수기를 두고 구약의 주요 전승인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이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읽어 온 것처럼 현대에도 민수기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논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책의 주요 주제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오경의 다른 책들과 달리 민수기는 통일된 구조나 주제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켄펠트(Katharine D. Sakenfeld)도 “민수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의 개요를 파악하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¹⁾ 2차 인구조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Katharine D. Sakenfeld, *Numbers*, (Grand Rapids: Eerdmans, 1995), 8.

이후의 26-36장은 민수기의 결말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6-36장은 인구조사(26), 율법(28-30; 35), 전리품 분배 목록(31:25-47), 여정 목록(33:1-49), 영토 경계(34:1-12), 지휘관 목록(34:16-29), 이야기(27; 31; 32; 36) 등 다양한 장르와 이질적인 자료들의 배열로 인해 내적 응집력과 연결들을 찾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26-36장은 2차 인구조사 이후라는 시점²⁾을 암시하는 한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는 지리적 배경³⁾을 반복함으로써 구조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본 연구는 민수기의 결말 부분이자 사경을 마무리하는 26-36장의 위치에 주목하고 이 부분을 구성하는 각 문학 단위를 묶어 주는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아 봄으로써 통일성 있는 구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핵심 주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수기 구조의 통일성 문제

민수기 구조와 관련된 비평적 연구는 그레이(George B. Gray)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는 지리적인 배경과 체류 기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I. 시내광야, 19일 체류(1:1-10:10, 29-32); II. 시내 북부, 아라바 서쪽, 38년(10:11-21:9); III. 아라바 동쪽(요단 계곡), 5개월이하(21:10- 36:13).⁴⁾ 그는 민수기의 첫 번째 단락(1:1-10:11)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부록으로 보고 구조와 주제의 통일성을 인정했지만 그 외는 전체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잘려

2) MT 25:19 “그 재앙이 지난 후였다”(וַיְהִי אַחֲרֵי הַמִּנְפָה)라는 구절을 25:18 뒤에 이어지게 했다. 반면에 70인역은 위의 구절을 26:1안에 배치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은 70인역을 따랐다. MT의 배열도 결과적으로는 바알브을 사건 뒤에 2차 인구조사가 이어짐으로써 두 사건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할지라도 25:19의 위치는 2차 인구조사 사건과 의도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민 26:3, 63; 31:12; 33:48; 34:15; 35:1; 36:13.

4) George B. Gray, *Numbers*, ICC (Edinburgh: T. & T Clark LTD, 1976), xxvi-xxix.

나온 한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제의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⁵⁾ 마틴 노트도 민수기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성도 상당히 불분명한 한편의 민담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민수기는 오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 전체적인 큰 맥락이 결여되어 상이한 내용과 연대와 성격을 지닌 수많은 전승의 단편들이 두서없이 결합되었다.⁶⁾ 민수기는 독립된 통일체가 아니므로 오경의 틀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트는 민수기 자체에 근거하기보다는 오경의 주제에 따라 첫째 단락은 ‘시나산 계시의 계속’(1:1-10:36), 둘째 단락은 ‘계속되는 광야 인도’(11:1-20:13), 셋째 단락은 ‘경작지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와 시작’(20:14-36:13)이라는 세 구조로 나누었다.

그레이 이후 민수기 해석역사에서 민수기에서 통일된 구조나 주제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들이⁷⁾ 앞서 있을 때 웬함(Gorden J. Wenham)은 자료비평적 방법으로는 민수기의 자료들을 배열하고 조직한 편집자의 의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⁸⁾ 그는 민수기 구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주기적인 반복으로 보고 3개의 중요한 계시 장소인 사내, 가데스,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구조를 나누었다. 그는 민수기는 3개의 큰 단락(1:1-10:10; 13:1-19:22; 22:2-36:13)이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사내-가데스(10:11-12:16)와 가데스-모압평지(20:1-22:1) 단락이 이어주는 구조로 파악했다.⁹⁾ 그는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유형(typology)이 있다고 보았고 민수기에서는 반역 이야기가 그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죄성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반복해서 발전

5) Ibid., xxiv-xxv.

6) 마틴 노트, 『국제성서주석 민수기』, 이경숙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4.

7) 1980년대 후반까지 민수기에서 통일된 구조나 주제가 없다고 주장한 학자들에 대해서는 Won W.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Michigan/Cambridge: W. B. Eerdmans, 2003), 1-2의 각주 2-3번 참고 T.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1993), 2-3. 최근에도 셰어우드(S. K. Sherwood)는 민수기의 개요 외에는 확신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단언했다. S. K. Sherwood,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2), 110.

8) G. J. Wenham, *Numbers*, TOTC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14.

9) Ibid., 16의 출-민의 도식(diagram)과 54의 목차 참고.

시켜 나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오경의 구조 안에서 민수기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인다.

웬햄이 민수기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면 구조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올슨(Dennis T. Olson)에 의해 시도되었다.¹⁰⁾ 그는 민수기 해석사에서 의미 있는 구조를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민수기 이해에 중요한 장해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는 민수기 자체 내에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민수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틀은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로써 반역의 구세대(1-25장)와 희망의 신세대(26-36장)라는 세대적 전환이 주된 구조이며 주제라고 주장했다.¹¹⁾ 두 개의 큰 구조들은 서로 평행하는 하위 단락들이 전개되거나 대조되어 반역과 죽음의 구세대와 희망적인 새 세대라는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¹²⁾ 붓드(Philip J. Budd)도 민수기 주석에서 가장 먼저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적인 3중 구조로 잘 정리된 책으로 보았다.¹³⁾ 그는 사나산에서 공동체 설립(1:1-9:14), 광야 여정의 실패와 성공(9:15-25:18), 정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26:1-35:34)로 나누었다.¹⁴⁾

올슨과 붓드 이후에는 민수기의 일관된 내적 구조에 대해 동의하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단락 구분에 상이한 견해차가 있지만 올슨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한 2중 구조를 따르는 학자들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밀그롬(Jacob Milgrom), 자켄펠트, 콜(R. Dennis Cole)을 들 수 있다.¹⁵⁾ 민수기를 JE와 P자료의 상호 복합체로 이해하는 레빈(Baruch A. Levine)조차도 전체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식 중 하나로 광야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적 계승을 추적해야

10) Dennis T. Olson,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11) 테니스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25-31.

12) Ibid., 27-28의 도표 참고.

13) 필립 J. 붓드, 『WBC 민수기』, 박신배 역 (서울: 솔로몬, 2004), 17-18.

14) Ibid., 17. 민 36장이 제외된 것은 27:1-11의 정보에 추가된 부록으로 보기 때문이다.

15) Jacob Milgrom, *Numbers*, JPS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 Society, 1990), xxii-xxxi, 3, 219; Sakenfeld, *Numbers*, 4-11; R. Dennis Cole, *Number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 2000), 447.

한다고 주장했다.¹⁶⁾ 레빈은 자료설을 토대로 분석했지만 전체 구조에서 세대적인 계승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민수기의 구조 연구사에서 전반부인 1장-10장 10절까지는 대체로 통일성 있는 단락으로 보는데 큰 이의가 없지만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 거시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논쟁이 있다. 이원우는 새 세대의 전환과 희망적인 전망 주제는 이미 반역으로 점철된 10장 11절-25장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 올슨의 신구세대 구조 대신 성막 중심의 행진 준비(1:1-10:10)와 그 행진의 실천(10:11-36:13)을 보여주는 ‘준비와 실행’이라는 패턴을 주장한다.¹⁷⁾ 그는 각 본문의 의미를 살피고 다른 인접 본문들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문맥의 단계를 거치는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 방법론을 제시하고 단락을 양식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민수기의 치밀한 조직을 입증했다.¹⁸⁾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그는 민수기의 주제를 하나님 성막의 출정 역사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라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올슨의 이해로부터 민수기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구조 연구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분석은 포괄적 문맥과 거시적 구조가 세부 단락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¹⁹⁾ 더욱이 행진의 실천이라는 두 번째 구조(10:11-36:13)에서 적어도 26-36장은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새로운 준비에 더 어울리며, 포괄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라는 주제를 26장 이후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수기의 구조 연구가 그동안 내적 구조와 문학적인 특징을 찾기 위해 주로 공식적인 방법론에 의해 탐구되어 왔으며 민수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16) B. A. Levine, *Numbers 1-20*, AB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3), 57-62.

17)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이원우,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엮음, 『두란노 How 주석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1-24; 이원우, “민수기의 거시구조: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 Ibid., 123-140.

18)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47-72, 119-282.

19) 왕대일, 『성서주석: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6-62; 김재구,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구약논단』 63 (2017), 41-93.

기여해 온 것을 살펴보았다. 민수기 구조 연구는 주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 후반부에 있으며 최근까지 세대적 전환과 구조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26-36장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자료의 모음이거나 부록 시리즈라는 견해²⁰⁾와 부드럽게 비교적 통일성이 선명한 단락으로 보기도 한다.²¹⁾ 올슨은 26-36장 구조를 통해 구세대와 대비되는 새세대의 주제가 민수기 이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²²⁾ 그러나 이원우가 비판한 것처럼 26-36장에서 새 세대라는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슨이 구세대와 새 세대를 대조하기 위해 앞의 1-25장과의 연관성에 집중하느라 26-36장 자체 안에서 단락의 배열과 의미, 문학적 특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26-36장의 구조 자체 안에서 하위 단락들의 배열에 집중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일관된 구조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민수기 26-36장의 문학적 구조와 통일성을 규명하는 일은 본문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어 민수기의 중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26-36장의 틀과 거시구조

올슨이 민수기 구조에서 26-36장의 역할과 의미를 밝힌 이래 그의 2중 구조를 따르는 밀그롬, 자켄펠트, 쿨은 세부 단락 구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도 26-36장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구조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민수기 전체를 3중 구조로 분석한 붓드, 스톱스(David L. Stubbs), 김진명은 26-36장을 세 번째 주요 구조로 본다.²³⁾ 이원우, 왕대일, 정중호는 올슨과는 다른

20) Sakenfeld, *Numbers*, 8.

21) 붓드, 『WBC 민수기』, 21.

22) 큰 구조는 다르게 보더라도 26-36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나눈 이들은 다음과 같다. 붓드, 『WBC 민수기』, 17; Milgrom, *Numbers*, 219; Sakenfeld, *Numbers*, 10-11; David L. Stubbs, *Numbers* (Grand Rapids: Barzos Press, 2009), 7;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117-118; 김재규,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65; 김진명, 『표준주석 민수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1-14.

23) 민수기 전체 구조에 대해 붓드는 1:1-9:14; 9:15-25:18; 26:1-35:34(부록 36)로, 스톱스는

2중 구조로 민수기 전체를 보지만 하위 단락의 하나로 26-36장을 구분하였다.²⁴⁾ 민수기 26-36장에 대해 밀그롬이 표현한 것처럼 ‘약속의 땅의 압박한 정착’이라는 한가지 주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야기들과 율법들의 배열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²⁵⁾ 사켄펠트는 슬로브하트 딸들에 관계된 두 개의 산문과 율법이 분리되어 있고(27:1-11; 36:1-13), 모세의 군사적 리더십이 끝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위임되었고 발람에 대한 이해도 앞의 22-24장과 매우 다르다는 점, 율법 자료의 불균형적인 양으로 인해 기본적인 핵심에 추가된 부록 시리즈로 보인다고 지적했다.²⁶⁾ 붓드 또한 26-36장은 3중 구조 중에서 가장 통일성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장의 이야기와 율법들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론했다.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26-36장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신명기를 준비하게 한다는 문학적인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본문이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는 본문을 시작하는 서론에서 첫 번째 야훼의 땅 분배 명령(26:52-56)과 마지막 결말 부분에 다시 나타나는 두 번째 야훼의 땅 점령과 분배 명령(33:50-56)은 전체 거시구조에서 중요한 서사적 틀을 제공하며 이야기의 주요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야훼의 땅 분배 명령(26:52-56)은 26-36장의 서론을 이끌며 ‘땅 분배 준비’를 위해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슬로브하트 딸들의 이야기를 포함하며 첫 번째 틀을 제공한다(26:1-27:11). 두 번째 야훼의 땅 점령과 분배 명령

1:1-10:10; 10:11-25:18; 25:19-36:13으로, 김진명은 1:1-14:45; 15:1-25:18; 26:1-36:13으로 나누었다. 붓드, 『WBC 민수기』, 17; Stubbs, *Numbers*, 7; 김진명, 『표준주석 민수기』, 11-14.

24) 이원우는 1:1-10:10과 10:11-36:13으로 나누고 25:19-36:13은 21:4-36:13의 하부 단위로 나누었다.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280-282. 왕대일도 이원우의 2중 구조를 따르나 22:2-36:13에 속한 하부 단위로 보았다. 왕대일, 『성서주석: 민수기』 73-76. 정중호는 1:1-14:45; 15:1-36:13으로 나누고 26-36장은 21-36장의 하부 단위로 구분하였다. 정중호, 『한국구약학총서: 민수기 I』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32-35.

25) Milgrom, *Numbers*, xiii.

26) Sakenfeld, *Numbers*, 8.

(33:50-56)은 ‘땅 정착 준비’를 위한 일련의 명령들과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길르앗 종족 수령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마지막 틀에 해당한다(33:50-36:13). 이 두 단락 사이에 놓인 이야기 혹은 율법 자료들(27:12-33:49)은 5개의 하위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하위 단락들도 서사적인 틀과 긴밀한 내적 구조를 보이며 26-36장의 구조의 통일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26-36장에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의 서사적 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락은 26장의 인구조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군대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은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총계에 바로 이어진 야훼의 명령 속에 그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26:52-56). 26-36장 전체에서 야훼의 명령은 새로운 이야기나 율법을 시작하는 중요한 표지로 나타난다. 26장은 두 번에 걸친 야훼의 명령(26:2, 52-56)이 있는데 그 중에 인구조사의 목적과 관계있는 두 번째 야훼의 명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명령은 27-36장까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각 하위 단락에 배경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훼의 첫 번째 땅 분배 명령(26:52-56)은 슬로브핫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26장의 인구조사와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는 한 단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두 개의 이야기의 연관성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 중심의 계보에서 르나세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슬로브핫 딸들의 이름이 나오며(26:33), 슬로브핫 딸들이 땅 분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라 자손을 언급하고(26:9-11),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26장 65절에 비추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조사가 땅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²⁷⁾ 슬로브핫 딸들이 야훼의 명령에 근거해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점은 두 이야기를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²⁸⁾

27) 민 26-36장의 땅 분배 모티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와 비교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Dylan R. Johnson, “The Allotment of Canaan in Joshua and Numbers,” *JBL* 141/3 (2022), 427-447.

28) 키슬레브(Itamar Kislev)는 26장의 편집사를 연구하면서 인구조사는 땅 분배를 위한 데이터

마지막 단락(33:50-36:13)에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라”는 야훼의 명령은 다시 나타난다. 야훼의 두 번째 땅 분배 명령(33:50-56)은 임박한 가나안 땅 입성과 두 지파 반에 의해 동요르단 땅이 이미 분배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36장을 제외하고 야훼의 일련의 명령들에 의해 임박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연속적으로 제공된다. 첫째 단락(26:1-27:11)에서 땅 분배의 모티브는 마지막 단락(33:50-36:13)에서 야훼의 명령으로 강화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를 가정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제시되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땅 경계와 땅 분배를 책임질 지도자들, 레위인들에게 분배될 성읍과 도피성들에 관한 규정들은 임박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로 보인다. 다만 거의 법 규정으로 구성된 이 단락에서 유일한 이야기인 36장을 마지막 단락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²⁹⁾. 첫 번째 단락처럼 인구조사와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단락이 땅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문맥이며 두 지파 반이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이후 달라진 상황속에서 36장이 지파 공동체의 땅 분배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 단락 안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26-36장을 감싸고 있는 서사적 틀로서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모두 땅 분배 모티브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단락의 배열은 평행 패널(parallel panels)³⁰⁾이라는 문학적 장치에 의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이스로써 인구조사 기록과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된 단일단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Itamar Kislev, “The Census of the Israelites on the Plains of Moab(Numbers 26), Sources and Redaction,” *VT* 63 (2013), 236-260.

29) 33:50-36:13을 한 단락으로 본 학자들은 그레이, 애슐리, 스톱스가 있으며 33:50-56을 제외하고 34:1-36:13을 한 단락으로 본 이들은 올슨, 자켄켈트가 있으며 출애굽 여정을 포함시킨 33:1-36:13을 한 단락으로 나눈 학자는 이원우, 왕대일, 김진명이 있다.

30) ‘평행 패널’은 밀그롬이 민수기를 분석하는 여러 구조 양식의 한 용어로 사용했다. 평행 패널은 두 개의 단락(혹은 구절)의 순서가 교차 혹은 평행식으로 병치되어 이야기나 사건이 대칭성이나 구조적인 반복성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거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Milgrom, *Numbers*, xxvi-xxviii.

땅 분배를 위한 준비(26:1-27:11)

A 12지파별 인구조사(26:1-51)

B 땅 분배 명령(26:52-56)

C 레위인 계수와 결론(26:57-65)

D 슬로브핫 딸들의 땅 상속권(27:1-11)

땅 정착을 위한 준비(33:50-36:13)

B' 땅 점령과 분배 명령(33:50-56)

A' 땅 경계와 10지파별 땅 분배 지휘관(34:1-29)

C' 레위성읍과 도피성(35:1-34)

D' 슬로브핫 딸들의 혼인법(36:1-13)

AA'는 12지파 공동체를 배경으로 인구조사와 땅 분배를 책임질 지휘관들의 10지파별 인명 목록을 포함한다. A의 인구조사 목적이 땅 분배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라면 A'는 분배받을 땅의 범위와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할 책임자들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BB'는 야훼의 명령으로 발화된 땅 분배와 점령을 지시하는 이야기이다. B의 분배 명령은 B'에서 원주민들과 우상에 대한 척결 지시로 정착 단계에서 실행될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준다. AA'와 BB'는 교차대구로 배열된 구조이다. CC'는 레위인을 배경으로 그들의 계수(C)와 그들에게 분배될 성읍과 도피성 규정(C')이며 DD'는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법과 혼인법을 다루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CC'와 DD'는 평행의 구조로 반복되어 땅 분배의 주제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26-36장의 틀을 구성하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 사이에 있는 5개의 하위 단락들(27:12-33:49)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땅 분배의 모티브라는 일관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36장의 문학적 통일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축은 땅 분배와 정착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하나님의 일련의 명령들에 대해 새 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알터(Robert Alter)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 작가들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구현되는 것을 이야기(narrative)의 실제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과정은 변증법적 긴장 관계로 표현된다고 말한다³¹⁾.

31) 로버트 알터, 『성서의 이야기 기술』, 황규홍, 박영희, 정미현 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1), 62-63.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의지 혹은 섭리와 인간의 자유 혹은 고집스러운 본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광야 여정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일련의 반역과 배교 사건들은 이러한 긴장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민수기 마지막 장(26-36)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지만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거나 인정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된다.

최근에 그로스만(Jonathan Grossman)은 이러한 접근으로 25-31장의 심층구조를 연구한 바 있다.³²⁾ 그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브올 사건으로 인해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25:16-18)이 31장에서야 수행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라는 서사를 방해하고 26-30장이 끼어 들어간 구조로 본다.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26-30장에 포함된 6개의 에피소드가 신의 명령과 인간의 주도성 간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심층구조로 주장한다.³³⁾ 그는 결론적으로 25-31장은 신의 명령과 그에 따른 인간의 개입 사이의 긴장이 그들의 주도권을 규제하는 새로운 신의 명령으로 해소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26장의 인구조사는 바알브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전 세대와 구분하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바알브올 사건은 출애굽 1세대의 완전한 소멸을 초래한 결정적 사건이며 반역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25장과 26장을 분리해서 볼 당위성을 높인다. 더욱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안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양상은 26장 이후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신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슬로브핫의 딸들과 모세처럼 문제 제거나 심지어는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거부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신의 명령과 인간의 주도성이라는 패턴의 시작을 바알브올 사건에서 보여준 비느하스의 반응에서 찾기 보다는 새 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더 적합할

32) Jonathan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A Literary View on Numbers 25-31," *Biblical Interpretation* 15 (2007), 54-79. 민 25-36이 오경 편집의 마지막 단계라는 주장을 전개한 알베르츠도 민 25장과 이후 마지막 장들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보았다. Rainer Albertz,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The Late Priestly Layers of Num 25-36," *ZAW* 125/2 (2013), 222-224.

33) J.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54-56.

뿐만 아니라 이들 이야기가 26-36장을 시작과 끝에서 감싸고 있는 유기적인 문학 블록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로스만의 연구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³⁴⁾ 이제부터 26-36장의 전체 구조에서 땅 분배 모티브가 직, 간접으로 각 하위 단락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야훼의 명령에 대한 새 세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볼 차례이다.

4. 26-36장의 내적 구조와 통일성

4.1. 땅 분배를 위한 준비(26:1-27:11)

4.1.1. 땅 분배 모티브

민수기 26-36장의 중심 주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은 4개의 세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압 평지에서 행해진 두 번째 인구조사(26:1-51)와 인구조사의 목적이 드러나는 야훼의 새로운 명령(26:52-56), 레위인의 계수와 결론(26:57-65), 슬로브핫 딸들 이야기(27:1-11)가 이어진다.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는 야훼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한 것이라면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은 모세에게만 단독으로 전해져 앞의 명령과 구분된다. 붓드는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땅 분배의 수행자일 뿐 중대한 계시를 받은 것은 모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³⁵⁾ 땅 분배 명령의 특이성은 핵심단어인 헬레크(חֶלֶק)가 사역적 의미의 피엘형이 아닌 니팔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고³⁶⁾ 모세가 주어가 아닌 땅, 혹은 기업을

34) ‘유기적인 문학 블록’이란 용어는 밀그롬이 26-36장의 문학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한 말이다. Milgrom, *Numbers*, xiii.

35) 붓드, 『WBC 민수기』, 481.

36) 54절에서 헬레크 대신 사용된 유탄(יָתַן)도 나탄(נָתַן) 동사의 칼 수동형이 사용된 특이한 유형이다. 게세니우스는 사역형이 없는 동사들에서 이런 유형이 발생한다고 한다(\$52e, \$53u). E. Kautsch 편, 『게세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레빈은 본문에서는 헬레크 동사의 피엘형이 더 적합하며 주어도 모세를

주어로 기술된 문장에서도 암시된다(민 26: 52, 55, 56).

53절에서 야훼 명령의 첫 단어는 땅 분배의 수령자들, 즉 라엘레(לֵאלֵלִי)인데 이 또한 동사 앞에 두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을 분배받을 ‘이들’은 바로 앞에서 계수된 601,730명을 가리킨다. 레위인들의 계수가 야훼의 명령 뒤에 이어지나 그들은 땅 분배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분명히 언급되었다(민 26:62). 그러나 이들조차도 기업은 아니지만 성읍을 받아 최소한의 거주지가 주어질 것이다(민 35:1-8). 이렇게 해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새로운 세대들과 출애굽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야훼의 땅 분배의 수령자들이 될 것이라는 요약 보고로써 명단이 완성되었다(26:63-65). 그러나 이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슬로브핫 딸들의 전격적인 등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로서 헤벨 가문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상속권이 없는 미혼 여성들이었다. 이 5명의 여성들과 이후 민수기 32장과 36장의 땅 분배와 관련된 이들이 모두 므낫세 지파이며, 이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렬한 유언을 남긴 요셉의 후손들이라는 점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창 50:24-25). 가부장적 사회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미혼 여성들이 땅 분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매우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더욱이 이들로 인해 땅 상속권의 범위가 아들에서 딸로,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아버지 형제->근친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민 27:8-11). 그러므로 첫 단락에서 땅 분배를 위한 기준(26:52-56)과 수령자들의 명단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첫 단락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땅 분배 모티브는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4.1.2. 하나님의 명령과 슬로브핫 딸들

가리키는 2인칭 남성단수 미완료형이 옳다고 본다. Levine, *Numbers 21-36*, 325.

2차 인구조사에서 각 지파별로 소속 가문들의 대표인 남성들의 이름 가운데 특이하게도 슬로브핫의 딸들과 아셀 지파의 딸 세라, 레위인 가운데는 요게벳과 미리암 등 8명의 이름들이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새로운 세대와 연관된 이들은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이다. 새 세대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을 열은 이들은 놀랍게도 이 5명의 여성들이었다. 자켄펠트는 이들에 대해 “아버지가 사망한 미혼여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나 입지가 없는 사람들로 있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³⁷⁾ 그러한 여성들이 회막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슈가 땅 분배에 관한 야훼의 명령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인 모세에게 감히 도전하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자신의 율법이 중요한 사항을 간과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⁸⁾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기존의 율법이 적용되지 못해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례들이 3회³⁹⁾ 더 나타나지만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는 더 주의 깊게 다루어졌다. 그로스만은 슬로브핫 딸들의 이름과 계보가 상세하게 소개된 것은 그들의 독특성과 중요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며 그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⁴⁰⁾ 슬로브핫 딸들의 항변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땅 상속권의 주장은 야훼의 명령에 근거한 것임을 아래와 같이 두 본문을 비교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공평한 땅의 분배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땅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37) Sakenfeld, *Numbers*, 149.

38) *Ibid.*, 149-150.

39) 신성모독자 처벌(레 24:10-23), 안식일 위반자 처벌(민 15:32-36) 규정은 슬로브핫 딸들의 땅 상속법과는 구별되어 비교하기 어렵다. 부정한 자들의 유월절 참여 이야기(민 9:6-11)는 슬로브핫 딸들의 입법 과정과 유사하다. 레빈은 총 4건의 사례는 제사장적 기원론 중의 하나로써 ‘혁신적인 입법 과정’으로 묘사했다. Levine, *Numbers* 21-36, 342. 밀그롬도 새로운 신약으로 해결된 이 4건을 언급하며 공통적인 문학적 패턴의 7가지 양식을 찾아냈다. Milgrom, *Numbers*, 230.

40)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64.

야훼의 명령(26:53, 55-56)	슬로브핫 딸들(27:4)
53 이 명수(מִסְפָּר שְׁמוֹת)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שְׁמוֹת מִשְׁתַּח אֲבֹתָם)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4a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אֲבִינוֹ שֵׁם)이 그의 종족(מִשְׁפָּחוֹת)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56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4b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핫 딸들이 제기한 땅 상속권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그들의 주장이 인정되었다(민 27:6-7). 하나님의 전격적인 수용 이후 개정된 상속법은 슬로브핫의 딸들 같은 처지들에 있는 여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들 상속자가 없는 불행한 남성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반 법으로 확장되었다. 땅 상속권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슬로브핫 딸들의 도전이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격적인 수용과 땅 분배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새 규정들 또한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였다. 올슨은 새 세대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해 “열린 계시와 이스라엘 전통의 유연성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로의 초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⁴¹⁾

4.2. 모세의 후계자 선정(27:12-23)

4.2.1. 땅 분배 모티브

붓드는 모세의 후계자 문제를 다루는 두 번째 단락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27:1-11) 땅 소유와 상속을 다룬 시점에서 땅 분배의 문제를 실행시킬 인물(34:16-29)을 다루는 것은 적절한 배치로 보았다.⁴²⁾ 12절에서 야훼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린

41)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255-256.

42) 붓드, 『WBC 민수기』, 499.

다. 그 명령은 모세의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며 그것은 그의 가나안 땅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다는 문맥에서 땅 분배의 모티브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12절에서 야훼의 명령 속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하는 구절이 여기에서 사용된 의도를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대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הָאָרֶץ אֲשֶׁר נָתַתִּי לְבְנֵי יִשְׂרָאֵל)이라고 말한다. 양식화된 이 표현은 구약에서 땅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인 가나안 땅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며 비중 있게 다뤄진다.⁴³⁾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의 관계가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절에서 사용된 땅 묘사는 친 광야에서 발생한 트리바 물 사건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20:2-13). 민수기 20장에는 트리바 물 사건 전후로 미리암, 아론의 죽음이 보고되는 가운데 12절과 같은 땅 묘사가 2회 나타난다(20:12, 24). 민수기 20장에서 사용된 땅 묘사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 우상 숭배 및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질 벌과 멸망을 언급하는 문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⁴⁴⁾ 그러나 27장에서 나타난 땅 묘사는 이중적인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 12절의 땅 묘사는 모세의 불신으로 인해 초래된 죽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직접 조망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땅 분배의 실현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따라서 본문에서 12절의 양식화된 땅 묘사와 땅 정복과 분배를 책임질 여호수아의 등장을 통해 땅 분배의 모티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이미숙, “신명기의 땅 표현양식 연구” (미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

44) 신 9:23; 수 23:16; 왕상 9:7; 대하 6:27; 렘 17:4.

45) 전재영은 민 27:12의 땅 묘사에 대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땅 약속 모티브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땅 분배 주제로 축소 시킨 모티브로 설명하며 이를 포로귀환 시대의 두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주장했다. Jeon, “The Promise of the Land and the Extent of P,” 522. 그가 땅 약속과 분배 모티브를 나누는 기준을 삼는 족장 이름의 유무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양식화된 땅 묘사에서 족장 이름이 없는 경우에도 땅 약속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신 1:8, 21).

4.2.2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다음으로 야훼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 볼 차례이다. 그로스만은 두 번째 단락에서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⁴⁶⁾ 하나님의 명령은 아바림 산에 올라 땅을 조망하라는 것인데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었다.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구조로 되묻는 양식으로써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훼의 명령(27:12)	모세의 반응(27:15)
וַיֹּאמֶר יְהוָה אֶל מֹשֶׁה 12a	וַיִּדְבֹּר מֹשֶׁה אֶל יְהוָה 15a

그로스만은 아론의 죽음 보도 양식과 모세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아론은 제사장 복을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죽음을 맞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후계자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세가 후계자 요청을 하며 미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지도자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미래 지도자는 군사적 지도력을 갖추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목자의 이미지로 비유된 왕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7:17). 모세가 왕정을 암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후계자 선정을 수용하면서도 모세의 인식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엘르아살의 우림 판결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제한과 한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27:21-22).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주도적인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계시 방식을 얻게 되었다.

4.3. 정한 시기에 바칠 제물과 여성의 서원 규정(28:1-30:16)

4.3.1. 땅 분배 모티브

46) J.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65-69.

세 번째 단락에 속하는 제의법과 여성 서원법 규정은 26-36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다른 이야기들과 잘 연결되지 않아 노트는 마지막에 끼어든 자료로 본다.⁴⁷⁾ 그러나 밀그롬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모세의 후계자 문제가 결정된 이후 다음 단계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질 제의 달력을 정하는 토라의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다고 본다.⁴⁸⁾ 민수기 28-30장의 제의법이 가나안 땅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 절기나 제의 등의 율법이 독특하게 양식화된 땅 묘사와 결합 되어 나타나는 앞선 예들(민 15:2b, 18b)을 볼 때 광야가 아닌 미래의 가나안 정착 후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더욱이 민수기 28-29장 제의법만의 고유한 특징인 총량적인 수 언급을 통해 제시된 많은 제물과 곡물, 포도주 등은 풍요로운 농경사회를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땅 분배 모티브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⁰⁾

4.3.2. 아궤의 명령과 서원

28-29장의 제의법은 특정한 시간에 드러지는 공적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30장의 서원법은 개인적 차원에서 드러지는 제의로 구분된다. 서원법 자체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자유롭게 드러지는 제의 영역이므로 서약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30:2). 서원법은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데 가부장 사회 아래 있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로스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인간이 주도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게 하는 패턴은 아니지만 서원법 자체가 인간의 주도성을 토대로 한 율법이라는 점에서 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⁵¹⁾

47) 노트, 『국제성서주석 민수기』, 240.

48) Milgrom, *Numbers*, 237.

49) 민수기 외에 더 많은 예들은 이미숙, 『신명기의 땅 표현양식 연구』 198-298 참고.

50) Wenham, *Numbers*, 196-197;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264-265; Albertz,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225.

51)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69-71.

4.4. 미디안 전쟁의 승리(31:1-54)

4.4.1. 땅 분배 모티브

26-36장의 네 번째 단락은 모세의 마지막 과제(25:16-18)로 주어진 미디안 족속을 치는 이야기이다. 31장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전반부(31:1-24)와 전쟁 후 전리품을 배분하는 후반부(31:25-54)로 구성되었다. 전쟁과 관련된 시점이나 장소가 없고 경과 등이 상술되지 않고 승리 이후에 일어난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전리품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은 땅 분배의 모티브 보다는 미디안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의 배분에 대한 총괄적인 진술로써 가나안 땅 정복의 선취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의도로 읽혀 진다. 올슨은 전쟁의 전리품이 백성과 레위인에게 넘치도록 배분된 일은 가나안 땅과 그것의 풍요로운 소산을 지파 공동체가 받는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보았다⁵²⁾.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고백(31:49)은 26장에서 계수된 사람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⁵³⁾. 따라서 이들 모두 땅 분배의 수령자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준다.

4.4.2.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미디안 전쟁 이야기는 서두와 중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이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각기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로스만은 특히 전리품의 분배 명령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패턴에 적용된다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미디안 전쟁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긴장 관계는 후반부(31:25-53)보다 전반부(31:1-24)에서 발생했다. 하나님의 첫

52)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272.

53) Sakenfeld, *Numbers*, 169.

54)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74-76.

번째 명령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복수를 갚으라는 것이다(31:1-2).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귀환했지만 문제는 군대가 모세와 회중 앞에 나오면서 발생했다.⁵⁵⁾ 모세는 군대 지휘관들이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살려둔 것이 제2의 바알브올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분노했다(31:13-20).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도적인 역할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새 세대에게 첫 번째 닦친 공동체의 위기였으나 모세와 엘르아살의 중재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공동체가 수용함으로써 타결되었다.

4.4.3. 하나님의 명령과 군대 지휘관

후반부는 전리품 계수와 분배를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전리품은 백성과 레위인에게 순조롭게 분배되었다(31:41-47).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자신들의 전리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31:48-50). 그로스만은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와 비교하며 그들의 접근(27:1; 31:48)과 하나님 앞에 가져온(27:5; 31:50)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것을 주목한다.⁵⁶⁾ 그는 두 이야기 모두 땅과 전리품 분배의 명령에 대해 모세 앞에 나와 분배의 규정을 바꿀 달라고 요청했고 모두 하나님에 의해 수용된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이들의 헌물은 회막에 드러졌는데 26-36장에서 회막은 슬로브핫 딸들의 이야기와 여기서만 등장한다(27:2; 31:54). 이는 순종을 넘어선 인간의 주도적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수용으로 볼 수 있다.

55) 군인들은 회중 앞에 ‘왔고’(וָּבֹא), 모세와 지도자들은 ‘나갔다’(וָּצֵא)라는 동사의 대조는 긴장 관계를 암시한다(31:12, 13).

56) Grossm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76. 슬로브핫 딸들과 군인들의 접근은 וָּבֹא 동사의 칼형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송사와 전리품을 가져온 것은 וָּבֹא 동사의 히필형이 사용되었다.

4.5. 두 지파 반의 동요르단 땅 분배(32:1-42)

4.5.1. 땅 분배 모티브

다섯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앞서 정복한 동요르단 땅(21:21-35)이 모세에 의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는 내용을 다룬다. 지금까지 26-31장에서 땅 분배 모티브는 직, 간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이었고 그 대상은 새 세대, 즉 모든 지파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지파의 요구는 26장에 제시된 야훼의 명령(26:52-56)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대신 동요르단 땅을 요구했고 제비 방식이 아닌 9개의 성읍을 스스로 선택했다(32:3-4). 더욱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과 와해를 초래하고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그들은 모세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전쟁에 동참할 것과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에게 승인을 받았다(32:16-19).

비록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가 정탐꾼들의 불순종에 비유될 만큼 중대한 불신으로 여겨졌지만 동요르단 땅 분배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로 긍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밀그롬은 32장에서 사용된 5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7회씩 반복된 패턴을 통해 단락의 요지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만일 갓과 르우벤이 (요단을) 건너서 야훼(의 궤) 앞에서 선봉(נִלְחָמוּ)에 나서면 그 땅을(그들이 원하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⁵⁷⁾ 따라서 모세와 두 지파 간의 협상은 언약 체결 자체로 해석되기도 한다.⁵⁸⁾ 두 지파가 요구한 성읍은 지명 목록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성읍을 재건축하고 새로 이름을 짓는 것은 땅 정복의 중요한 특징이다(32:34-38). 또한 므낫세 반 지파가 새롭게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확장하는

57) Milgrom, *Numbers*, 492-493.

58) A. Noordtziij, *Bible Student's Commentary Numbers*, trans. Ed van der Maa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3), 281; 왕대일, 『성서주석: 민수기』, 660.

것도 긍정적인 묘사로 볼 수 있다(32:39-42). 두 지파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한 약속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4.5.2. 하나님의 명령과 갓, 르우벤 지파

그로스만이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 대 인간의 주도적인 반응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패턴은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단락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갓, 르우벤 두 지파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좋게 보고 모세와 엘르아살, 회중 지도자들 앞에 나왔고(ויבאו), 모세의 거부 후에도 협상을 위해 다시 접근(ויצא)했다(32:2, 16). 모세는 그들의 요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거부했다(32:15).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지파의 접근과 모세의 거부는 26장에서 내려진 야훼의 땅 분배 명령을 전제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이 간접적으로도 명시되지 않은 것은 26-36장 전체에서 32장이 유일하다. 이는 본문이 하나님의 개입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두 지파의 적극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일이 모압 평지에서 재현될 수 있었지만 모세와 두 지파는 협상을 통해 위기를 모면했다. 동요르단 땅의 분배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수여로 구별되고 있어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⁵⁹⁾ 마지막에 언급된 분배된 성읍 목록은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59) 신 2:18과 3:18은 두 지파가 받은 땅을 하나님이 수여하신 선물로 묘사하지만 민 32:33, 34:13-14, 수 13:42 등은 ‘모세의 분배’를 분명히 한다. 조블링(David Jobling)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범위를 놓고 가나안 땅의 지위와 동요르단 땅의 합법성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다음을 참조하라. David Jobling, “The Jordan a Boundary: Transjordan in Israel’s Ideological Geography,”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es in the Hebrew Bible*, JSOT sup., 39 (Sheffield: JSOT Press, 1987), 88-134.

4.6. 출애굽 여정 보고(33:1-49)

4.6.1. 땅 분배 모티브

여섯 번째 단락은 모세가 야훼의 명령으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행진을 기록한 여정 목록이다. 이 단락에서는 땅 분배 모티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정 자체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며 이후부터는 오직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내용(33:50-36:13)으로 확실하게 전환 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땅 분배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밀그룹에 따르면 33장의 출애굽 여정 보고는 광야를 횡단해서(1-21장) 동요르단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22-32장)이 설명되고 있으므로 논리적인 배치라고 평가 한다⁶⁰⁾. 특히 디본 갓의 언급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이를 언급하는 것은 동요르단 땅을 분배받은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⁶¹⁾.

4.6.2. 새 세대의 여정

출애굽 여정 보고는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된 것이지만 장르의 특성상 그로스만이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주도적인 반응이라는 패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 보고는 단순히 회상을 위한 목적에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새 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60) Milgrom, *Numbers*, 277.

61) Ibid., 277. 그러나 알베르츠는 32장과 34장 사이에 배치된 목적을 33장과 34장의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된 구원 역사인 반면 32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순전히 인간의 주도로 이루어진 역사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Alvertz,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225-226. 그러나 33장에 밀그룹이 지적한 것처럼 디본 갓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에 포함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의 각주 60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요르단 땅의 정착 사건에 대한 해석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모세와 공동체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다. 33장 38-40절은 애굽에서 에돔 땅 호르산까지(5-37) 여정과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여정(41-49) 보도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이다. 38-40절은 아론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출애굽 세대로부터 새 세대가 주도하는 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별히 40절은 광야 여정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는 유일하게 승리한 아랏 왕과 전쟁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21:1-3). 왜 이 사건이 아론의 죽음 뒤에 나오는 것일까? 40절의 배치는 원 자료(20:22-21:3)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21:1a

וַיִּשְׁמַע הַכְּנַעֲנִי מֶלֶךְ עַדְדַּי יֹשֵׁב הַנֶּגֶב כִּי בָא יִשְׂרָאֵל
וַיִּשְׁמַע הַכְּנַעֲנִי מֶלֶךְ עַדְדַּי וְהוּא יֹשֵׁב בְּנֶגֶב בְּאֶרֶץ כְּנָעַן בָּבָא בְּנֵי יִשְׂרָאֵל

33:40

위의 히브리어 문장을 비교해 보면 33장 40절에서 아랏 왕은 ‘그가 네게 브를 통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사형 시제(יֹשֵׁב)로 바뀌었고 ‘가나안 땅’과 ‘자손’이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이는 21장에서 승리한 사건을 출애굽 여정의 보도에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닐까?⁶²⁾ 21장에서 아랏 왕에 대항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서원하고 야훼가 그들에게 적을 넘겨줌으로써 승리했다고 한다. 40절이 21장 1-3절의 전쟁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서원은 그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나안에서 거둔 승리가 곧 새 세대의 것으로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암시해 준다.

4.7. 땅 정착을 위한 준비(33:50-36:13)

62) 이원우는 2차 인구조사 이후가 아닌 21:1-3을 신세대의 새로운 시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원우, “민수기의 거시구조: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전환,” 『두란노 How 주석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30-137.

4.7.1 땅 분배 모티브

26-36장의 마지막 단락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지나온 출애굽의 거대한 여정을 돌아본 후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내용이다. 땅 정착을 위한 지침들의 각 서두는 야훼의 새로운 명령과 함께 가나안 땅 입성 시점이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같은 장소를 언급하는 특징이 보인다(33:50-51; 34:1-2; 35:1, 9-10). 서두에 사용된 분사형 동사들(עָבְרִים, בָּאִים)은 임박한 가나안 땅 입성을 묘사 하며, 36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사는 바브연속 완료형이나 미완료형 동사로써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한다. 마지막 단락은 땅 점령과 분배에 관한 명령이 새로 내려지고(33:50-56), 분배할 땅의 정확한 경계(34:1-15), 지휘관 선정(34:16-29), 레위 성읍과 도피성 분배(35:1-34), 땅 상속권과 관련된 에피소드(36:1-13)로 마치면서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땅 분배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위 단락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4.7.1.1. 땅 점령과 분배 명령(33:50-56)

26장의 야훼의 땅 분배 명령(26:52-56)은 2차 인구조사 후에 나타났지만 마지막 7번째 단락은 야훼의 땅 분배와 관련된 명령으로 시작한다(33:50-56). 이번 야훼의 명령은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야 했다. 26장의 땅 분배 명령이후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이 허용되는 개정과 땅 분배를 실행할 책임자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선정되었고 동요르단 땅에 정착한 지파들이 생기는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다. 33장 서두의 명령은 26장의 야훼의 땅 분배 명령으로부터 인구수에 따른 공평한 분배와 제비뽑기 방식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지만 원주민과 우상, 산당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추가되었으며(33:52, 55), 실제적인 점유(וְהוֹרִישָׁם)와 정착(וַיִּשְׁבְּתָ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33:53a). 비록 아라쉬(אֲרָשִׁי) 동사의 히필형이 정복 전승에 따른 것으로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차지하라는 의미⁶³⁾라 할지라도 그 점유는 하나님의 땅 수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속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33:53b).

63) Levine, *Numbers* 21-36, 524.

4.7.1.2. 땅 경계와 10지파별 땅 분배 지휘관(34:1-12)

34장 1-12절은 분배받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묘사한다. 웬햄에 따르면 34장의 가나안 땅 경계는 주전 15세기와 그 이후에 이집트의 가나안 통치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⁶⁴⁾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34:7-9)는 다메섹을 포함한 아람 지역과 갈릴리 호수의 동쪽 땅인 골란 지역을 포함하지만 두 지파가 정착한 동요르단의 중부와 남부 지역은 제외되었다.⁶⁵⁾ 따라서 밀그롬은 두 지파가 정착한 동요르단 땅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올슨은 시혼 땅 정복은 성전의 과정으로 묘사된 바 있어 약속의 땅 밖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⁶⁶⁾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한 묘사 이후에 그 땅을 받을 지파들은 ‘야훼의 명령’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34:13)이 사실이지만 동요르단에 땅을 받은 두 지파 반도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מִלְכָּמָה)을 받았으므로 야훼의 땅 분배 원칙을 따랐다는 점을 암시한다(34:14-15). 가나안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의 명단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10지파로 새롭게 조정되었으며 이 일을 수행할 지도자로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다시 언급되었다(34:16-29).

4.7.1.3. 레위 성읍과 도피성(35:1-34)

35장에서 야훼의 새로운 명령은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들 가운데 각 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나눠주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했다(35:1-8, 9-15). 레위인들은 12지파와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나 최소한의 거주와 생계를 위한 땅이 제공되었다. 레위 성읍은 42곳, 도피성은 동요르단에 3곳, 가나안 땅에 3곳씩 배치해야 했다. 레위 성읍은 레위인들의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인 만큼 전국에 흩어져 하나님의 폭넓은 임재를 상징한다. 특별히 도피성은 과실 치사자가 흘린 피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만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처소이다. 32장에서 두 지파 반의

64) Wenham, *Numbers*, 231.

65) Ibid., 233의 지도 참고.

66) Milgrom, *Numbers*, 501-502;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283-284.

동요르단 땅 분배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곳에도 레위 성읍 10곳과 도피성 3곳이 배치될 것이다(수 21:27, 36-39). 각 지파가 할당받은 레위 성읍은 인구수에 비례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야훼의 분배 명령을 상기시켜 준다(35:8).

4.7.1.4 슬로브핫 딸들의 혼인법(36:1-13)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은 앞선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루는 내용으로 전자가 개별적이고 가족 중심의 땅 분배 문제를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지파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레빈은 36장을 32장과 34장에서 규정된 땅 분배 시스템에 비추어서 27장의 규정들을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⁶⁷⁾. 만일 한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다면 33장 이후의 새로운 야훼의 명령들(33:50-34:29)에 따라 약속의 땅을 분배한다는 신성한 계획은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길르앗 종족들의 수령들은 므낫세 지파로서 이들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유일한 지파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

7번째 단락의 서두에서 새롭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33:53b-54a)이 ‘하나님의 땅 수여’를 전제한 땅 분배라면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은 앞의 명령으로부터 야훼의 지시에 따른 ‘모세의 분배’(36:2a)를 추가해 강조한다. 이는 26장의 인구조사 후 야훼의 땅 분배 명령처럼 하나님의 중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모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33:53b-54a

כי לכם נתתי את הארץ לרשת אתה והתנחלתם את הארץ בגורל למשפחותיכם
וַיֹּאמְרוּ אֲנִי אֲדֹנֵי צוּר יְהוָה לָתֵת אֶת הָאָרֶץ בְּנִחֻלָּה בְּגוֹרֵל לְבְנֵי יִשְׂרָאֵל
36:2a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은 이스라엘 지손뿐만 아니라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내려진 상속규정도 똑같이 야훼의 지시에 따른 모세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있다

67) Levine, *Numbers* 21-36, 575.

(36:2b). 그러나 그들은 여성 상속자의 결혼으로 타 지파로 기업이 넘어가서 지파의 땅 분배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슬로브핫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길르앗 종족들의 수령들도 모두 하나님의 땅 분배 명령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모세에 의해 인정받았다. 모세는 여성 상속권과 지파 경계의 보전을 위해 지파 내 결혼이라는 새로운 규정으로 보완했다(36:5-9).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땅 분배 명령은 영구적으로 지파 경계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라”(כִּי אִישׁ נַחֲלָתוֹ יִדְבֶּקֶן) (מַטֵּה בְנֵי יִשְׂרָאֵל)는 새 규정의 목적은 2회 걸친 반복(36:7, 9)과 관계의 고착을 뜻하는 특이한 동사 다바크(דָּבַק), ‘들러붙다, 붙박다’를 통해 강조된다.

4.7.2. 하나님의 명령과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

7번째 단락들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한 준비로써 야훼의 일련의 명령들로 전해지는 규정들이 대부분이라서 그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은 이야기 형식을 갖춘 36장이다. 그로스만은 신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주도적인 반응이라는 패턴에서 36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이 27장에 언급된 슬로브핫 딸들로 인해 촉발된 여성 상속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이 이미 제정된 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유사한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들의 주도적인 등장은 슬로브핫 딸들과 같은 동사(וִיקַרְבוּ)가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땅 분배에 대한 야훼의 기본적인 명령(36:2a)과 슬로브핫 딸들의 새 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

36:2a

וַיֹּאמְרוּ אֶת אֲדֹנֵי צוּה יְהוָה	לָתֵת אֶת הָאָרֶץ בְּנַחֲלָהּ
וְאֲדֹנֵי צוּה בַיהוָה לָתֵת אֶת נַחֲלַת צִלְפַּחַד אֲחֵיו	בְּנֹרָל לְבְנֵי יִשְׂרָאֵל

36:2b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은 슬로브핫 딸들에게

적용된 새 규정도 야훼의 지시임을 인정하고 있다(36:2b). 그런데 그들은 땅 분배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할 때는 ‘제비’(נוֹרָה) 방식을 언급한다(36:2a). 제비뽑기는 단순히 땅 분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에 의해 정해진 지파 경계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⁶⁸⁾ 따라서 그들이 인식한 문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한다면 제비로 뽑은 기업이 줄어들어 땅 분배의 기본 원칙과 상충 된다는 것이다.

야훼의 개입은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직접적이지 않지만 야훼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보고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슬로브핫 딸들은 지파 내 결혼(36:6-7)으로 제한하는 한편 다른 일반 여성 상속자들의 혼인법으로 확장하였다(36:8-9). 길르앗 종족 수령들은 야훼의 땅 분배 명령에 근거해 여성 상속권 실행에 따른 의문점을 들고 모세와 공동체 앞에 자발적으로 나왔다. 야훼의 수용으로 새로운 규정이 세워진 후 실제 슬로브핫 딸들이 순종한 결과로 “그 여성들의 기업이 지파 안에 남았다(וְחַיֵּי נַחֲלָתָן) (עַל מַטֵּה)”고 후기를 덧붙였다(36:10-12). 이러한 후기는 가문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슬로브핫의 딸들과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려고 나선 길르앗 종족 수령들 사이의 노력들이 성공했음을 알려 준다.

5. 나가며

지금까지 26-36장이 다양한 장르의 목록들과 이야기, 율법 규정들의 각 문학 단위가 무질서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와 서사적 전망을 만들어 내려는 내적인 문학 장치들에 의해 구조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26-36장을 감싸고 있는 서사적 틀로서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땅 분배에 대한 야훼의 명령(26:52-56; 33:50-56)을 포함하여

68) Itamar Kislev, “Numbers 36:1-12; Innovation and Interpretation,” *ZAW* 122 (2010), 257-258.

이를 토대로 한 땅 분배 모티브가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하위 단락들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내적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땅 분배 모티브의 통일성 있는 구조는 26-36장의 핵심 주제의 하나가 땅 분배였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땅 분배라는 핵심 주제는 주요 메시지를 함께 내포한다. 슬로브랏 딸들처럼 땅 상속권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땅 약속으로부터 아무도 소외되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분배받은 땅에서 살며 절기 및 제의 율법을 수행할 예배 공동체라는 점에서 땅과 율법이 언약적인 토대임을 보여준다. 동요르단 땅 분배는 두 지파 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이 실행될 영역으로 새롭게 제시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에 불박아 살며 가족과 지파 공동체가 그 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26-36장의 문학적 통일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구조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과 관련한 야훼의 명령들에 대해 새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야훼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주도적인 반응이나 개입이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지만 26-36장에서는 그것이 야훼에 의해 수용되어 율법이 개정되거나 문제가 새롭게 해결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새 세대의 주도성은 이전 세대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26-36장에서 신의 명령과 인간의 주도성이라는 심층구조로 살펴 본 결과 새 세대의 주도성은 땅 분배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주제로 떠오른다. 26-36장에서 보인 새 세대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훼의 명령과 율법을 수행 할 첫 세대로서 하나님 백성의 전거로 삼을 수 있는 특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세대의 주도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인본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주의 깊게 반응했고 하나님과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기존의 율법이나 전통에 도전할 만큼 창의적이고 대담했지만 그것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내는 일을 함께 모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수행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지도자들과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활발한 소통과 타협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26-36장의 정교한 문학적 구조와 통일성이 드러난 땅 분배와 새 세대의 주도성이라는 핵심 주제는 광야 여정에서 보여준 이전 세대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주제로부터 확연하게 전환해 민수기의 중심 주제를 이동시킨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의 상속에 대한 확신과 역동적인 새 세대로 인해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책으로 마지막을 마친다. 동시에 26-36장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열어주는 연결 역할을 한다. 사사기에서 민수기의 새 세대는 ‘그 백성’(עַם)으로 지칭되어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데 이는 아마도 민수기 26-36장의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반영한 적합한 결론이자 요약으로 읽을 수 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의 받은 기업을 점유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그 백성**은 야훼를 섬겼다”(삿 2:6-7a). 그러므로 26-36장은 잡다한 부록 시리즈가 아니라 민수기의 또 다른 중심 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민수기의 전체 구조와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에서 26-36장의 구조와 핵심 주제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 26-36장, 문학적 통일성, 땅 분배 모티브, 인간의 주도성, 내적 구조

<Keywords>

Numbers 26-36, Literary Coherence, Land Distribution Motif, Human Initiative, Inner Structure

* 접수일 2025년 2월 13일, 수정일 2025년 3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20일

참고문헌

- 김진명, 『표준주석 민수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김재구, “민수기의 거시구조에 대한 재조명,” 『구약논단』 63 (2017), 41-93.
- 데니스 올슨, 『현대성서주석: 민수기』, 차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로버트 알터, 『성서의 이야기 기술』, 황규홍, 박영희, 정미현 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1.
- 마틴 노트, 『국제성서주석 민수기』, 이경숙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두란노 How 주석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 이미숙, “신명기의 땅 표현양식 연구,” 미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8.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왕대일, 『성서주석: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정중호, 『한국구약학총서: 민수기 I』,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 필립 J. 붓트, 『WBC 민수기』, 박신배 역, 서울: 솔로몬, 2004.
- E. Kauzsch 편, 『게세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 2003.
- Albertz, Rainer “A Pentateuchal Redaction in the Book of Numbers?: The Late Priestly Layers of Num 25-36,” *ZAW* 125/2 (2013), 220-233.
- Ashley, Timothy R.,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93.
- Cole, R. Dennis, *Number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Gray, George B., *Numbers*, ICC, Edinburgh: T. & T Clark, 1976.
- Grossman, Jonathan,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A Literary View on Numbers 25-31,” *Biblical Interpretation* 15 (2007), 54-79.
- Jaeyoun Jeon, “The Promise of the Land and the Extent of P,” *ZAW* 130/4 (2018), 513-528.
- Jobling, David,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es in the Hebrew Bible*, JSOTsup. 39, Sheffield: JSOT Press, 1987.

- Johnson, Dylan R., "The Allotment of Canaan in Joshua and Numbers," *JBL* 141/3 (2022), 427-447.
- Kislev, Itamar, "The Census of the Israelites on the Plains of Moab(Numbers 26), Sources and Redaction," *VT* 63 (2013), 236-260.
- _____, "Numbers 36:1-12; Innovation and Interpretation," *ZAW* 122 (2010), 249-259.
- Levine, Baruch A., *Numbers 1-20*, The Anchor Bible,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3.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Society, 1990.
- Noordtzi, A., *Numbers*, Bible Student's Commentary, trans. Ed van der Maa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3.
- Sakenfeld, Katharine D., *Numbers*, IT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 Sherwood, Stephen K., *Leviticus*, Berit Olam, Numbers, Deuteronomy, Colleg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2.
- Stubbs, David L., *Numbers*, Grand Rapids: Barzos Press, 2009.
- Olson, Dennis T., *The Death of the Old and the Birth of the New: The Framework of the Book Numbers and the Pentateuch*,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Wenham, Gordon J., *Numbers*, TOTC,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1.
- Won W. Lee,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Michigan/Cambridge: Willam B. Eerdmans, 2003.

<초록>

민수기 26-36장의 문학적 구조와 통일성: 땅 분배와 새 세대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이미숙

(장로교신학대학교, 교수)

2차 인구조사 이후의 26-36장은 민수기의 결말이자 사경의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6-36장은 인구조사, 율법, 여정, 영토 경계, 전리품 및 지휘관 등의 다양한 장르와 목록, 이야기 등 이질적인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6-36장의 각 문학 단위가 무질서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와 서사적 전망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문학 장치들을 통해 통일적 구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26-36장을 감싸고 있는 서사적 틀(26:1-27:11; 33:50-36:13)에서 땅 분배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하위 단락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내적 응집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6-36장의 문학적 통일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의 일련의 명령들에 대한 새 세대의 주도적인 반응이라는 패턴이다. 슬로브핫의 딸들과 모세, 길르앗 종족의 수령들은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며 율법과 다른 이야기에서도 확장해 적용해 볼 수 있었다. 야훼의 명령이나 기존 전통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새 세대에 대해 하나님은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27:6-11, 18-21; 36:6-9), 수용(30:16; 31:48-54)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동체의 타협과 수용으로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적응하기도 했다(31:13-24; 32:16-32). 본 연구는 26-36장의 각 문학 단위가 땅 분배 모티브

라는 내적 구조와 ‘신의 명령과 인간의 주도성’이라는 심층구조의 두 축이 문학적 통일성에 기여하며 땅 분배와 새 세대의 주도성이라는 핵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Abstract>

Literary Structure and Unity of Numbers 26-36: Centered on Land Distribution and the Initiative of the New Generation

Assoc. Prof. Mi Sook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hapters 26-36 of the Book of Numbers hold a special position and significance as the conclusion of Numbers and the final section of the Tetrateuch. However, these chapters consist of diverse genres and heterogeneous materials, including censuses, laws, journeys, territorial boundaries, the lists of spoils of war and tribal leaders.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unified composition of these chapters by identifying structural literary devices that create an integrated message and a cohesive narrative perspective, rather than viewing them as a disorderly arrangement of independent uni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narrative framework surrounding chapters 26-36 (26:1-27:11; 33:50-36:13)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land distribution motif, which exerts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the intervening subunits, thereby achieving internal cohesion. Another axis that underscores the literary unity of chapters 26-36 is the pattern of the new generation's initiative responses to a series of divine commands. The daughters of Zelophehad, Moses, and the leaders of the Gileadite clans exemplify this pattern, which can also be extended to laws and other narratives.

In response to the bold challenges posed by the new generation against Yahweh's commands or existing traditions, God responded through new legislation or amendments (27:6-11, 18-21; 36:6-9) and acceptance (30:16; 31:48-54). However, in certain cases, new issues and situations were adapted to through communal compromise and acceptance rather than direct divine intervention (31:13-24; 32:16-32).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iterary units of chapters 26-36 achieve literary cohesion through an inner structure centered on the land distribution motif and a deep structural axis characterized by "Divine command and Human initiative." It proved to be intended to highlight the core themes of land distribution and the initiative of the new generation.

